

중·고등학생의 집단따돌림 극복 과정

김 순 구¹⁾ · 김 영 혜²⁾ · 김 명 희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중·고등학생은 발달단계상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로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다가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이성 및 동성의 친구들과 새롭게 좀 더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변화된 체격을 받아들이며 부모나 다른 어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 자립, 결혼 및 가정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며, 일련의 가치 및 윤리적 체계를 습득한다(Kim, 1997). 이러한 발달과업을 잘 수행할 경우 부모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미래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써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Kwon, 1996).

중·고등학생들은 가정에서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같은 나이의 동년배와 상호 작용할 기회가 점차 증가하므로 친구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고,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여 자립할 수 있는 지지기반을 형성하게 된다(Lee et al., 2002). 이러한 또래관계는 그들의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친구집단으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거나 배척 당하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있다.

집단따돌림이란 한 학생 또는 집단이 다른 학생에게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Karstadt & Woods, 1999).

집단따돌림 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초, 중, 고등학생의 집단따돌림 피해 정도는 1997년 30.0%, 1998년 24.2%로 나타나(Choi, 1999), 집단따돌림의 피해정도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집단따돌림을 당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들은 소외감, 무력감 및 절망에 빠지고(Astor, Pitner, Meyer & Vargas, 2000), 심각한 대인기피증을 보이는 등의 정신질환 증상을 나타내거나 심지어 자살을 초래하기도 하여 연구자들은 개인,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수준의 전략으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Garland, 1999; Margolin, 2001).

그러나 살펴보면, 간호실무에서는 집단따돌림 청소년에 대한 간호가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간호이론도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고 여러 학문 분야에서도 집단따돌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된 연구들은 집단따돌림 실태조사나 대처프로그램에 대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Jeon, 2000; Kim, 1999; Ok, 2000; Park, M. S., 2001). 본 연구자는 집단따돌림을 당하던 중·고등학생들이 이를 극복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양적 연구방법론으로는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에 한계가 있어 질적 연구 접근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질적 연구의 경우에도 집단따돌림에 대한 단순한 현상만을 파악하였거나(Park, E. N., 2001) 집단 따돌림의 피해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의 연구(Kim, 2003)만 있을 뿐 집단 따돌림을 극복해 나가는 이들 경험의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접근해 각 단계간의 역동적 관계를 개념

주요어 : 중·고등학생, 집단 따돌림, 극복 과정,

1) 강원관광대학 간호과 조교수 2)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투고일: 2003년 11월 18일 심사완료일: 2004년 1월 7일

화함으로써 하나의 이론적 틀을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의 집단따돌림 극복 경험에 대한 실체이론을 구성하여, 이들의 문제에 대한 본질과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목적 및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생의 집단따돌림 극복 경험에 대한 실체이론개발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된 연구 문제는 “중·고등학생의 집단따돌림 극복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을 극복한 중·고등학생의 경험과정을 설명하는 실체이론을 도출하고자 Strauss & Corbin(1990)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시도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의 참여자는 총 5명의 집단따돌림을 극복한 중·고등학생들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도시(부산시)와 중·소도시들(경북 K시, 경남 K시 및 강원도 T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들로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자를 중·고등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생들보다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선행연구에서 집단따돌림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참여자의 연령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양하게 선정되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두 포함되었다. 집단따돌림을 당한 기간도 1주일에서부터 8년까지 다양하였다. 가능한 많은 범주를 찾기 위해 연구취지에 적합한 경험을 한 각각 다른 상황의 참여자를 다양하게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평소에 연구자와 알고 지내던 친척과 학교 보건교사, 학교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및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로부터 집단따돌림 극복 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소개받아 이루어졌다. 우선 참여자를 소개해준 분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참여자 및 참여자의 부모를 만나 면담 전에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중·고등학생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참여자의 신분 및 신상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익명을 사용할 것과 면담내용은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연구 진행과정 중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

는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연구자의 훈련과정

본 연구자는 4년 가까이 대학에 재직하면서 집단따돌림 경험이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하여 그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운 경험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교육적 준비과정으로는 질적 연구 방법론과 근거이론 개발 등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였고, 질적 연구의 이론 및 실체에 관한 문헌을 탐독하면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논문을 2편 썼으며, 근거이론방법에 대한 워크숍에 참여하여 실제적인 연구과정을 익히면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 논문을 1편 썼다.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약 4개월 간이었다.

자료수집 전 연구자는 참여자와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후에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시 알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질문하기 전에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여 신뢰감을 형성하였다.

자료수집의 형태는 주로 심층면담과 참여관찰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의 얼굴표정과 몸짓, 태도 등을 관찰하여 메모노트를 하였다. 면담은 가능한 비구조화된 면담기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주된 질문은 “학교생활은 어떠합니까?”, “친구들과 지내면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친구들의 따돌림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등과 같은 폭넓은 질문으로 시작하여 대담 내용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이어나갔다.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은 참여자들의 진술내용에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포화되는 시점까지 진행되었다.

면담시기와 장소는 참여자가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였으며 주로 학교 보건실과 상담실, 참여자의 집, 연구자의 집 및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시 전화벨이 울리지 않도록 전화코드를 뽑아두거나 커피숍의 음악소리를 낮게 하여 주의집중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 하에 모두 녹음기에 녹음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횟수는 1인당 평균 2회 정도였고, 1회 면담시 소요시간은 40분~1시간 50분 가량이었다. 1시간 분량의 수집된 자료를 필사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4~5시간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 절차는 Strauss & Corbin(1990)의 근거 이론 분석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으며 분석과정에서 간호학 교수의 자문을 구하였다.

자료의 분석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 자료에서 나타난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개념 화하고, 비슷한 개념끼리 묶어서 하위범주로 통합하고, 하위범주를 더욱 추상화하여 상위범주로 도출하였다.

둘째,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분석 및 과정분석으로 패러다임 모형을 구축하여 범주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셋째, 핵심범주를 선택하여 관계를 진술하고 집단따돌림 극복 경험을 인과적 상황, 현상, 맥락, 중재적 상황, 작용/상호작용 전략 및 결과를 과정으로 나타낸 이론적 도해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먼저 참여자 선정 시 다양한 인구학적 배경을 가진 참여자를 고루 추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참여자의 진실왜곡이나 감춤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신뢰감을 형성하는 관계유지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노력하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면담하여 깊고 풍부한 자료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면담동안 같은 질문을 다른 형태로 다시 하거나 여러 차례의 면담으로 반복 확인해 보았으며, 자료분석 과정 중에도 수집된 자료를 계속 비교하고 제기된 주제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결과를 선행연구 및 문헌과 비교하면서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참여자에게 다시 제시하여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아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5명이었다. 참여자의 거주지역은 부산시, 강원도 T시, 경북 K시 및 경남 K시였다. 참여자의 연령은 14세에서 18세로 평균 16세였으며, 학년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2명, 고등학교 1, 2학년이 각각 2명과 1명이었다. 5명 중 3명은 남학생이었다. 이들 중 3명은 부모가 이혼한 상태였으며, 1명은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았다. 종교는 무교 3명, 기독교 2명이었으며, 형제순위는 첫째가 4명이었고 나머지는 막내였으며,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는 참여자는 2명이었다.

근거자료 분석에서 나타난 개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로부터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분석을 통해 31개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개념과 그에 관한 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소외됨>

따돌리고. 개네들이요 애들이 딱 이렇게 튀지 않을 때. 그리고 개네들 학교 초등학교 때요 같이 친구 했던 애들이 어울려서 다녀요. 근데 전 혼자서 그냥 혼자 다녀요.

<신체적 고통>

신부름시킬 때도 저한테 시키고 딱 그러고... 전심시각하고 애들이요 시켜요 그냥. 라면 먹고 싶으면 돈주고 사오라고요.

그냥 빨로 그냥 빨로 갖다 차고. 그러고 딱 빗자루 갖다 때리기도 하고 그러죠. 거의 매일이었어요. 그래서 얼굴 때리고 딱 머리카락 잘고. 잘 나가는 애들도요 개들 뒤에 우르르 몰려서요 딱 때리고 가고. 애들이요 애들이 청소시간에 먹고 때리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속상함>

그 애들이요 물건을 뺏어가기도 하고.

제가 특별활동이나 어디 갔다오면은 가방을 갖다가 던져가 바깥에 나가지가 있고, 공책이 떨어지기가 있고.

<가슴아픔>

마음이요 왜 그렇게 하나 싶어서 제가 마음이 아프고... 위낙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위낙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그 옆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아파, 가슴이 많이 아프고 그랬어요.

<자살충동>

학교 옥상에서 학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냥 죽으면은 좋겠지 하면서... 죽으면 러습히지 않겠지... 진짜루 학 죽어버리면은 천당에 가서 그냥 살려고요.

그 때 스트레스 받게 했던 그 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많이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서움>

무섭고. 그러니까 재들이 내한테 어떤 행동을 할까. 행동은 하진 않았지만 이런 행동도 할 수 있고 저런 행동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꺾어보지 않았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까 봐.

<불안함>

정서불안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를 마치고 가면 그 때부터는 집이잖아요. 학원가면 개손을 이렇게 잡고 안 나온 제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불안하면.

<미워함>

저를 괴롭히는 그 애가 싫었어요. 한 마디로 말하면 그 애가 미웠죠 뭐. 그렇게 사람을 때리고 하면 법죠.

<화가 남>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서요 마음속으로요 욕도 하고요.

<혼내주고 싶음>

내 자존심을 건들지 못하게 발로요 한 대 딱 차고요, 손으로 딱 얼굴을 세게 한대 칠 작정이예요.

<복수하고 싶음>

복수해야겠다는 불타심이 확 확 끓어올랐어요. 나중에 할 계획이예요. 복수하는 법을 하면요 있죠 실패하잖아요. 차근차근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마음이요 언젠가 복수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만... 맞을 때도요 어떻게 복수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방법 모색하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깐... 그 애를 안 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 가지고 내가 그런 식으로 그 애를 안 볼까?

<잘난 모습 만들기>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보여준다든지, 책을 많이 읽고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똥따를 안 놓기고 그러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연구를 해 봐 가지고 지금 방학 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방학 때 한번 변화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방학에서 개학하는 날. 교회 다닌 표시로 해 가지고 뭐 열쇠에다가 목주를 달고 다닌다든지 그런 거.

<신에 의지함>

가서 기도를 해서 똥따 적응된 거도 있거든요. 왜냐면 하 나님한테 기도하면은 그 애가 때리면은 저를 받게 된다는 거. 넘어진다든지 다친다든지 그거 하면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일요일날에는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스트레스를 풀 때도 있고. 스트레스를 거기서 다 풀거든요. 구원될 수도 있고. 그게 느껴져요.

<내 말 들어줄 사람 찾기>

내가 겪고 있을 당시에는 내가 말해도 귀찮고 이렇게 상대방도 귀찮잖아요. 들어주기만 한다면, 말한다면 그게 그러니까 신뢰가 꼭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말할 수만 있다면 그게...

<놀이에 끼고 싶음>

놀 때요 그냥... 안 놀아 줘요. 그냥 혼자서요 책상에 앉고 그냥 그렇게 놀았어요. 그런데 그러고요. 저도요 같이 놀려고 했는데요. 싫어 너는 안 끼워 줘 이렇게 애들이 그랬어요.

<취미활동에 몰입해 잊어버리기>

PS방에 가서 게임하면 그냥 게임 하는 생각 밖에 안 나는데요. 아무 생각도... 머리 아프거나 목도 아무걸지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집 생각도 안 하고 힘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요.

<운동에 몰입해 잊어버리기>

처음에는요 어떤 아저씨가요 달리기만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루에 30분까지 했는데요. 힘들어서요 이제 전닝머신 그냥 5분만 5분, 10분 뛰고요 그냥 근육만 나탈라 하면서 팔 운동만 죽어라 했어요.

<반발함>

돈을 빌려가거나 그러면 돈을 잘 안 빌려줬죠. 왜 돈을 잘 안 빌려줬냐 하면 돈을 잘 안 갚기 때문예요. 안 빌려 주면 치사하다고 이래도 적대로 안 빌려줘요. 억지로 안 빌려줬어요.

<대응해봄>

애들이 집단으로 할 때요 딱 으악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냥 짜증나서 그냥 소리지르고.

<이해 받기>

그 여자 애 그 애 밖에 없었죠. 다른 애들은 다 농구하고 있었는데, 그 애는 딸리고 나는 코피가 흘러가 직직 흘러지가 있고... 그 여자 애 아니었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선생님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뿐 했어요. 그렇게 막아 줘 가지고 제가 그랬지 안 그랬으면 저는 그냥 이렇게 여기 울터가 짝 나가지고...

<위로 받음>

내가 뭐 인문계 들어가면 뭐 지 손에 뭐 장을 지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들어가면 내가 장 지지게 해주께. 내가 찌지뿌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 영어 테이프 사주셨어요. 1학년 영어 테이프, 그것까지 사주셨어요.

<힘을 빌림>

엄마가 학교에 갔어요. 내 친구하고 내 때전 친구한테요 뭐라 했는데. 운동장에서 엄마가 그 애들을 야단쳤어요. 학교에 갑자기 시끄러워서 보니까 엄마였던 거예요. 교실에서 나오고 이 앞에 교문 앞에서 엄마가 그 애들을 야단쳤어요.

<교사의 지지로 안정됨>

매일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막 이렇게 하고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수탁여행가서도 선생님이 늘 내 옆에 따라다니고 이렇게 '지킴이'로 이렇게 해주고 그랬거든요. 왜 '지킴이'가 필요했냐 하면은 자고 있는데 치약을 바른다든지요 그 그것 때문예요. 아주 안 좋은 행동을 해서 그 옆에 '지킴이'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하고 그러면 혼을 내주고.

<정신과 상담으로 후련함>

병원에 거 xx의원 거기서 좀 하고 이전 적은 한 두 번이 아니예요 상담을. 그 때는 상담 많이 해봤어요. 그 때는 마음 속에 있는 말을 다 뱉어낼 수 있고 그랬거든요. 그 때는 그렇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후련했어요.

<털어놓음>

어쩌다가 한번씩 가깝히 있다가요. 한번씩 머리 머친놈같이 잉어나 가지고 아주 안 좋게 정신병원 그거 같이... 그래 선생님이 그 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냐고 해 가지고 제가 적어내고 그랬어요. 역수로 많이 적어 내고 그랬어요. 정신병자 같다고. 정신병 좀 고쳐 달라고 거기다 적어 뱉어요.

초등학교 때는 별로 귀찮긴 같은 걸 당하면은 엄마한테 말해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맛볼어 싸우기>

한 1주일 동안 그렇게 귀찮았어요. 그래 자주 귀찮히니까 학 싸워 가지고 혼을 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겠다고 작정하고 그래 가지고 싸웠는데요. 참기 힘들어서 싸우기로 마음먹었어요. 누가 지는지, 누가 이기는지 어디 두고 보자 싶어서... 이번에 그냥 그래로 그 애가 하는

대로 놔두면 계속 귀찮힐 거 아니예요. 그래서 끝장을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더 못 참아 가지고요 싸웠는데요.

(짹하고 싸울 때는) 떳떳어요 무지.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

제가 고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를 내 입장에 맞는 친구를 찾아야 한다 그래 그전 걸 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된 거 같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해보자 한 거죠.

<가해자의 사과를 받음>

미안하다고 해도 사과도 잘 안 해주고 싶고. 선생님이 사과를 받아 주라고 그래 갖고 사과 받아줬거든요.

<상황이 호전됨>

그 이후로는 귀찮이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때리지도 놀리지도 않고.

<다시 친해짐>

개랑 사과하고 친한 친구 다시 됐어요. 친해졌어요. 어른들 많이 맞는 거 같아요. 싸움수록 이렇게 친해진다고 그거요. 많이 친해졌어요 개들이랑.

(그렇게 싸우고 나서는) 친한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거고는. 다른 반 애도요.

개념의 범주화

근거자료에서 도출된 31개의 개념은 14개의 하위범주로 추상화하였으며, 이를 다시 6개의 상위범주로 통합하였다. 상위범주에 대한 하위범주 및 개념은 다음과 같다.

- 힘듦 - 외로움(소외됨), 고통스러움(신체적 고통, 속상함, 가슴아픔, 자살충동), 두려움(무서움, 불안함), 분개(미워함, 화가 남, 혼내주고 싶음, 복수하고 싶음)
- 마음 다지기 - 전환점 발견(방법 모색하기, 잘난 모습 만들기, 신에 의지함), 어울리고 싶음(내 말 들어줄 사람 찾기, 놀이에 끼고 싶음)
- 극복하기 - 헤어남(취미활동에 몰입해 잊어버리기, 운동에 몰입해 잊어버리기), 용기를 냄(반발함, 대응해봄)
- 지지체계의 적극 개입 - 배려(이해 받기, 위로 받음, 힘을 빌림), 사회적 자원 활용(교사의 지지로 안정됨, 정신과 상담으로 후련함)
- 관계 열어가기 - 도움요청(털어놓음), 직접 맞섬(맛볼어 싸우기,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
- 어우러지기 - 용서함(가해자의 사과를 받음), 회복됨(상황이 호전됨, 다시 친해짐)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분석

● 인과적 상황 - 힘들

집단따돌림을 극복하게 되는 선행요인은 힘들었는데, 참여자들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소외되었으며 잔심부름이나 여러 가지 방법의 폭행으로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였다. 가해자들은 물건을 뺏아가거나 훼손하여 참여자를 속상하게 하였으며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게 하여 참여자들이 자살충동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으며 화가 나서 속으로만 욕을 하고 그들을 혼내주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짝튼 것으로 나타났다.

● 현상 - 극복하기

집단따돌림으로부터 벗어나는 중심현상은 극복하기로, 참여자들은 가해자들로부터의 힘든 경험을 이겨내기 위하여 컴퓨터 오락이나 독서 등의 취미활동 및 운동에 몰입하여 헤어나고자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속되는 가해자의 요구에 대하여 거절하는 방법으로 반발해 보거나 괴롭힐 때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대항하였다.

● 맥락 - 마음 다지기

집단따돌림 극복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의 맥락은 마음 다지기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집단따돌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신의 힘에 의지하여 괴로움을 이겨내 보려고 노력하는 등 의지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동시에 자신의 말을 들어줄 친구를 찾고 놀이에 같이 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을 엿볼 수 있었다.

● 중재적 상황 - 지지체계의 적극개입

현상에 대한 인과적 상황의 영향에 변화를 일으키는 조건인 중재적 상황은 지지체계의 적극개입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가족, 교사, 친구 및 사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집단따돌림을 극복하려 하였다.

● 작용/상호작용 전략 - 관계 열어가기

특정하게 인지된 상황 하에서 현상인 극복하기를 다루고 조절하고 실행하여 거기에 대처하도록 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관계 열어가기로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은 용기를 내어서 교사와 부모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털어놓고, 가해자와 맞붙어 싸우기, 적극적으로 친구 사귀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직접 맞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 결과 - 어우러지기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른 결과는 어우러지기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 용서하고 상황이 호전되어 다시 친해짐으로써 집단따돌림을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 분석

연구에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은 집단따돌림으로부터 벗어나면서 고립, 위축, 대응 및 적응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해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힘든 경험을 하면서 의논할 상대가 없이 혼자 고립되고 심리적 으로 위축된다. 이로 인하여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운동으로 힘을 길러 직접 가해자와 맞서 싸우거나 친구를 사귀는 등의 대응을 시도함으로써 집단 따돌림을 극복하고 문제가 해결되어 적응해 나간다.

자료의 관계진술

참여자들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먹고 용기를 내어서 주위의 지지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이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행동을 취함으로써 집단 따돌림을 극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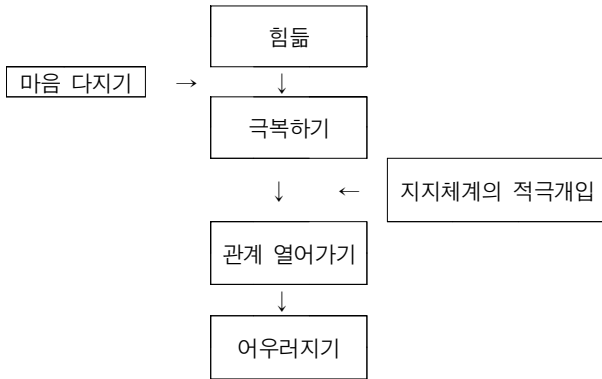
관계진술은 근거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맥락에 따른 핵심범주와 인과적 상황, 작용/상호작용전략 및 결과의 속성 사이의 있을 수 있는 가설적 관계를 근거 자료와 지속적으로 대조하여 진술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인 “극복하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진술을 도출하였다.

- 참여자가 경험하는 힘들이가 약할수록 집단따돌림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 열어가기가 적극적이고, 참여자가 경험하는 힘들이가 심할수록 집단따돌림을 “극복하기” 위한 변화시도가 소극적이 될 것이다.
- 참여자가 경험하는 힘들이가 약하고 마음 다지기가 강하면 집단따돌림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 열어가기가 적극적이고, 힘들이가 심하고 마음 다지기가 약하면 집단따돌림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 열어가기가 소극적으로 될 것이다.
- 참여자가 경험하는 지지체계의 적극개입이 강할수록 집단 따돌림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 열어가기가 적극적이고, 지지체계의 적극개입이 약할수록 집단따돌림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 열어가기가 소극적으로 표현될 것이다.
- 참여자가 경험하는 마음 다지기가 강하고 지지체계의 적극개입이 강하면 집단따돌림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 열어가기가 적극적이고, 마음 다지기가 약하고 지지체계의 적극개입이 약하면 집단따돌림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 열어가기가 소극적으로 표현될 것이다.

- 참여자가 집단따돌림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 열어가기를 적극적으로 할수록 어우러지기가 잘 될 것이다.

도해

중·고등학생들이 집단따돌림을 극복하는 과정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도해 1> 중·고등학생의 집단따돌림 극복 과정

논 의

청소년은 또래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놓고 일치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다.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은 가해자들로부터 또래로서의 교재를 거부당하고 친구가 없어지며(Parker & Asher, 1993), 사회와의 관계형성에 문제가 생기고 고립될 경우 형성된 무기력은 개인과 타인간의 관계를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한다(Elliott, 1998; Grossman, Milligan & Deyo, 1991; McMillan, 1995; Muscari, 2002; Noshpitz, 1994; Offler, 2000; Sunderland & Hunt, 2001).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가해자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괴롭힘조차 받을 수 없게 될 경우 집단의 일원에서 제외된 채 완전히 소외되는 것이 두려워서 일 것이다. 피해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그 집단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므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또래 친구들과 인간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지지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영적 안녕에 대한 요구는 인간이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에 부딪쳐 더욱 혼란스럽고 대내외적인 불균형과 부조화로 인하여 전체적인 평형을 잃게 되었을 때 더욱 커진다(Folta, 1995). 집단따돌림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처방안으로 폭

회개념을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Kim, 1999; Rhyu, 1999), 본 연구 참여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함으로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스트레스가 경감되며, 구원될 수 있다고 느끼므로 영적인 지지와 격려가 집단따돌림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친구들의 따돌림을 이겨내기 위하여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고치고 잘해보겠다는 마음을 굳게 가다듬는 것은 친구들과의 대화나 놀이에 끼고 싶어하는 참여자들이 선택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말과 행동에 신경을 쓴다는 Chung과 Kim(2000)의 연구결과에서와 비슷한 학생들의 심정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가해자의 따돌림을 잊어보려고 컴퓨터 오락, 독서 및 텔레비전 시청에 몰입해보기도 하고 운동으로 힘을 기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따돌림을 극복하려는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격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제까지 어떠한 반향도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던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미약하나마 반향하는 그들의 행동을 복돋워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참여자들은 가족, 친구, 교사 및 사회의 지지체계를 활용하여 집단따돌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Park, M. S.(2001)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이 집단따돌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교사, 부모 및 친구의 도움이라고 보고한 결과와 비슷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의 시기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아직까지 혼자 독립하지 못하는 연령인 참여자들이 집단따돌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위의 지지체계가 큰 힘이 됨을 반영하고 있다. 그들은 따돌림당하는 자신의 상황을 부모와 교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운동을 하여 힘을 기른 참여자는 가해자와 직접 싸움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친구가 되었다. 참여자 스스로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는 방법은 집단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친구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Kim, 2000)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의 집단따돌림은 초등학생의 경우와는 달리 문제해결을 위한 타인의 개입이 오히려 집단따돌림을 가속화시키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결과에서 사회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재 집단따돌림을 극복한 참여자의 경우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약 8년 동안 집단따돌림을 반복적으로 당하였으며, 그 때마다 부모 및 교사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한 것으로 볼 때 청소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집단 따돌림 해결방법 중 부모나 교사의 개입보다는 그들 자신의 노력을 통한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Pilling, 1998)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타인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잠재적으로 집단따돌림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치료적 이용으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생의 집단따돌림 극복 경험이 어떠한지를 규명하고 이를 근거이론으로 정립함으로써 간호실무에서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체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5명으로, 집단따돌림을 극복한 참여자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2월까지였으며, 자료수집 형태는 참여자와의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이었다. 자료분석 절차는 Strauss & Corbin(1990)이 제시한 근거이론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31개의 개념, 14개의 하위범주 및 6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으며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였다.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극복 경험에 대한 인과적 상황은 '힘들'이었고, 맥락은 '나름 다지기'였으며, 중심현상은 '극복하기'였다. 중재적 상황은 '지지체계의 적극개입'이었으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관계 열어가기'였고, 그 결과로 '어우러지기'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집단따돌림을 당하여 여러 가지로 힘들었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참여자는 집단따돌림을 완전히 극복하였으나 타인 혹은 상황의 도움으로 문제를 극복한 참여자의 경우 또 다른 새로운 상황이나 지지체계 적극개입의 정도가 약할 경우 다시 집단따돌림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산업화와 취업여성의 증가로 인하여 핵가족화가 더욱 가속될 전망이므로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에 대한 집단따돌림 문제는 이제 한 개인 또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전체의 문제이다.

따라서 집단따돌림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간호중재는 가정, 학교 및 사회의 측면에서 모색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개인이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와 집단따돌림 가해·피해 경험을 통합한 집단따돌림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집단따돌림 극복에 실패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결과와 다른 학문분야에서의 선행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가정, 학교 및 사회측면의 상호협력체제를 구축

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stor, R. A., Pitner, R. O., Meyer, H. A., & Vargas, L. A. (2000). The most violent event at school : a ripple in the pond. *Child and Schools*, 22(4), 199-216.
- Choi, E. S. (1999). *A study of psychological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 Chung, H. K., & Kim, K. H. (2000). The perception of teenagers on the bully: With the subject of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0(1), 137-147.
- Elliott, A. (1998). translation by Jung, M. Y.). *Psychoanalytic theory: An introduction*. Seoul: Hanshin Publishing Co.
- Folta, R. H.(1995. translation by Jung, J. S.). *Spiritual care: The role of medical personnel and nurse with christianity*. Seoul: Hyunmoon Publishing.
- Garland, A. (1999). Beware of the bully. *Nurs Stand*, 13(23), 65-67.
- Grossman, D. C., Milligan, B. C., & Deyo, R. A. (1991). Risk factors for suicide attempts among Navajo adolescents. *Am J Public Health*, 81(7), 870-874.
- Jeon, H. I. (2000). *A study of preventive program against bullying*.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of Korea, Chunan.
- Karstadt, L., & Woods, S. (1999). The school bullying problem. *Nurs Stand*, 14(11), 32-35.
- Kim, D. J. (1999). *The spiritual approach to the bullying*.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Honam Divinity University of Korea, Kwangju.
- Kim, H. J. (2000). *The effects of a bullying on self-identity in academic high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Aju University of Korea, Suwon.
- Kim, J. S., & Choi, S. M. (2000). *The study of case on counsel*. Seoul: Adolescent consultation of Korea.
- Kim, S. G. (2003). *The experience of the group-bullied among teenager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Busan.
- Kim, S. Y. J. (1997). *Growth-development and care of adolescent*. Seoul: Soomoon Publishing.
- Kwon, L. J. (1996). *An introduction to juvenile education*. Seoul: Education-Science Publishing Company.
- Lee, H. J., Kang, H. K., Kwon, B. S., Kim, J. S., Kim, Y. H., Kim, H. Y., Baek, K. S., An, M. S., Oh, Y. J., Won, D. Y., Lee, Y. E., Lee, E. J., Lee, J. W., Leem, H. B., Jung, H. M., Jun. H. J. (2002). *Nursing of child health*. Seoul: Jungdam Publishing.
- Margolin, S. (2001). Interventions for nonaggressive peer-rejected children and adolescents : a review of the literature. *Child and Schools*, 23(3), 143-159.
- McMillan, I. (1995). Hitting back at the bullies. *Nurs Times*, 91(3), 24-27.

- Muscari, M. E. (2002). Sticks and stones : The NP's role with bullies and victims. *J Ped Health Care*, 16(1), 22-28.
- Noshpitz, J. D. (1994). Self-destructiveness in adolescence. *Am J Psychother*, 48(3), 328-329.
- Offler, E. (2000). Bullying : Everybody's problem. *Ped Nurs*, 12(9), 22-26.
- Ok, S. S. (2000). *The actual condition and countermeasure device of bullying at school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Busan.
- Park, E. N. (2001). *A study on a phenomena of alienation from the mass(Wang-tta) in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Park, M. S. (2001). *A study on the social relations and group isolate in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Inje University of Korea, Kimhae.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 Psychol*, 29(4), 611-621.
- Pilling, S. (1998). Bully tactics. *Nurs Standard*, 12(31), 21.
- Rhyu, H. S. (1999). *The study on the role of school, home and church for overcoming of the bullying*.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Chongsin University of Korea, Seoul.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New Deli: SAGE Publications.
- Sunderland, L., & Hunt, L. (2001). Bullying: A soul shattering experience. *Australian Nurs J*, 9(2), 40.

Conquering Process of the Group-bullies among Teenagers

Kim, Soon-Gu¹⁾ · Kim, Young-Hae²⁾ · Kim, Myung-Hee²⁾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Tourism College.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ubstantive theory on the conquering experience of group-bullies among teenagers, and thereafter suggest a model for solving the problems. **Method:**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as proceeded by a method of Grounded Theory. Data was collected by interviewing the participants. Five teenag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who had already overcome the situation. **Result:** In the analysis 31 concepts, 6 categories, and 14 subcategories are extracted from the raw data, and all are constituted on the paradigm model. The causal condition is a painstaking of participants. The context is affirmative reconsidering and the phenomenon is conquering difficulties. The intervening condition is a positive intervention of a supporting system and the strategy for action/interaction is building a relationship. The consequences of this analysis is harmonizing.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adequate ways of conquering group-bullies. These are positive attitudes towards solving problems and the full use of support systems surrounding them.

Key words : Conquering process, Group-bullies, Teenager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Soon-Gu

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Tourism College

439, Hwangji-dong, Taebaek 235-711, Korea

Tel: +82-33-550-6372 Fax: +82-33-552-2833 E-mail: freiris@hanmail.net